**멋사 나만의 디자인 프로덕트 만들기**

**As-is**

여자친구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부산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여자친구와 서울역에서 만나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힘없고 연약한 여자친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여자친구의 무거운 큰 짐을 끌어주었다. 내 캐리어와 여자친구의 캐리어, 두 개를 끌고 부산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데 지하철과 차로 1시간이 걸렸는데,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고 한 번에 가는 버스를 놓쳐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3번 갈아타야 하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해야 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에서 캐리어 두 개를 끌고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한, 많은 계단과 좁은 에스컬레이터를 두 개의 캐리어와 함께 이용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 그렇게 힘들게 역에서 내려 숙소 체크인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우리가 검색한 식당이 숙소와 반대 방향에 있어서 캐리어를 숙소에 맡겨 놓고 다시 식당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라 캐리어를 끌고 식당에 갔다. 식당으로 가는 길은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 후에 식당에서 맛있는 장어 덮밥을 먹고 다시 숙소까지 캐리어를 끌고 갈 생각에 한숨이 나와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돈이 아까워 숙소까지 걸어갔다. 숙소에 도착한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부산을 많이 즐기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Who: 나, 여자친구

When: 여름 방학

Where: 부산, 더운 날씨, 지하철, 거리

Why: 부산 숙소에 가기 위해서

How: 큰 두개의 캐리어를 끌다, 지하철 고생, 도로의 상황 안 좋음, 택시 비쌈, 버스 놓침

What: 지하철을 타고 무사히 집 도착

주관적인 요소 정리

* 여행에 가서 큰 캐리어를 끌고 한 시간 거리의 숙소 까지 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 택시는 비싸고, 버스는 방금 지나가서 30분 기다려야 해서 지하철을 타야만 했다
* 지하철에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은 캐리어를 두개 가진 나는 힘들었고,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숙소 까지 걸어가는데 힘들었다

**To be**

KTX 에서 내려서 캐리어를 숙소까지 드랍 해 주는 앱을 켠다. GPS를 켜서 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캐리어 드랍 해주는 곳을 찾는다. 그 후에 요금을 지불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캐리어를 숙소까지 배달해 주는 곳에 짐을 맡기고 나는 가벼운 몸으로 숙소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하게 간다. 숙소 체크인 시간 보다 일찍 도착한 나는 역 근처에서 밥을 먹고 편하게 숙소까지 다시 걸어간다. 숙소에 도착한 나는 체크인을 여유롭게 하고 도착한 캐리어를 들고 숙소로 들어간다.

객관적인 요소 정리

Who: 나 여자친구 인파

When : 더운 여름

Where: 부산, 지하철, 거리

How: 앱으로 위치 확인후 돈 지불과 함께 캐리어를 숙소 까지 배달한다.

What: 숙소에 도착한다

Why: 숙소에 편하게 가기 위해

주관적인 요소 정리 무제

* GPS 정확도
* 서비스 도입 시초기 거부 반응
* 요금 결제 연동
* 짐의 안정성 확실성

주관적인 요소 정리 좋아진 점

* 지하철에서 힘들게 캐리어를 두개 끌지 않아도 됨
* 택시비 절약
* 체력 절약
* 캐리어 트랙 가능 어디쯤 왔는지 도착했는지

요소 연결

* 앱에서 내 캐리어 위치 자동으로 잡아 줌 -> 배달 GPS 기술
* 주로 가는 목적지-> 호텔 숙소는 거의 붙어 있음 ex) 해운대, 광안리
* 요금은 앱을 통해 결제 -> 요금 결제 연동

**골든 서클**

A diagram of a diagram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medium confidence

**와이어 프레임**

A diagram of a delivery service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medium confidence